



THE GOLDEN RATIO 아트 쇼

‘오리진(ORIGIN)’: 강이연 작가의 3D 비디오 스컬프처

예거 르쿨트르의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리베르소 디자인을 기리기 위하여 새로운 아티스트와의 협업 선보여

예거 르쿨트르는 그랑 메종만의 문화 세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Made of Makers’의 일환으로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인 강이연 작가와의 새로운 협업을 선보입니다.

위치메이킹과 예술 사이의 교류 확장

예거 르쿨트르는 위치메이킹 이외 분야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장인들과의 협업 시리즈인 ‘Made of Makers’를 통해 위치메이킹과 예술 간의 교류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랑 메종의 핵심 원칙인 창의성과 전문성, 정밀성을 핵심적으로 공유하며, 종종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표현을 탐구하는 아티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창의적 토대이자 선구적인 작업을 위한 발판으로서 과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3년, 예거 르쿨트르는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협업을 통해 현대 미술의 세계를 깊이 탐구합니다.

탁월한 기술력으로 표현되는 독특한 예술적 비전

움직이는 이미지와 소리로 공간을 재구성하며 몰입형 시청각 설치 작품으로 인정받는 강이연은 오늘날 글로벌 아트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재능 있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중 한 명이며, 동시에 존경받는 교육자이자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강이연은 그녀의 예술 활동과 연구 모두에서 “유한과 무한, 현실과 비현실, 표면과 깊이, 부재와 존재 사이”를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예술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경험의 교차점을 탐구합니다. 예술을 소통의



매체로 여기는 그녀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인류와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질문과 관련하여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경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강이연의 작품들은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예술 형태를 통해 기존의 스크린을 넘어 움직이는 이미지와 서사 그리고 공간 간 공생 관계의 유희를 선보입니다. 실내용으로 제작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작품부터 공공 야외 공간의 대규모 사이트 스페시픽(site-specific) 작품에 이르기까지, 몰입형 환경은 관객을 참여자로 개입시키며 그들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들이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때로는 공간과 차원, 시간 감각이 해체되고 재형성됨에 따라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프랙탈 기하학은 거의 유기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흘러감으로써 각 작품에 우아함과 유동성을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워치메이킹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아름다움은 지적 엄격함, 복잡한 수학적 계산과 극도의 정밀함이 뒷받침됩니다.

황금 비율에서 영감을 얻은 3D 비디오 스컬프처

예거 르쿨트르는 Made of Makers 협업과 관련하여 아티스트에게 독창적인 작품을 의뢰하며, 그들만의 특별한 수공예 기술을 통해 메종의 관심 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지원합니다. 강이연은 예거 르쿨트르에 있어 2023년 황금비율 테마가 어떤 의미인지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스위스 발레드주에 위치한 매뉴팩처에서 시간을 보내며 메종의 발상지와 그 가치 그리고 워치메이킹 프로세스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뉴팩처에서 리베르소의 제작 과정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창의성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작업하는 아티스트로서, 리베르소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본능적으로 황금 비율을 따랐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고, 인류가 수 세기 동안 그 개념에 끌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찾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자연에서부터 디지털 공간으로 이어지는 탐험을 위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거 르쿨트르에서 새롭게 의뢰한 작품인 *오리진(Origin)*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공공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초대형 3차원 스크린에 전시되는 *오리진(Origin)*은 우리 주변 세계에



편재하는 황금 비율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작품은 서사를 통해 대칭을 이루는 자연의 패턴과 아르데코 디자인의 기하학적 패턴 사이의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강이연은 “자연에서 황금비율인 파이 숫자를 나타내는 놀라운 예시들이 발견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것이 단지 미적 패턴일 뿐만 아니라 진화의 닻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의 기원을 나타낸다는 점에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류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황금 비율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집니다.”라고 전합니다.

서울에서의 첫 공개 이후 이어지는 월드 투어

*오리진(Origin)*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첫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청두, 싱가포르, 뉴욕, 취리히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예거 르쿨트르 행사에서 전시 될 예정입니다.

Made of Makers 소개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워치메이킹 이외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및 장인 커뮤니티를 한자리에 모읍니다. 시계 제작과 예술 사이에 존재하는 교류를 확장하는 이 프로그램은 항상 그랑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 원칙인 창의성과 전문성, 정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그랑 메종의 가치를 공유하며 종종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구하는 열정적이고 숙련된 아티스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되는 새로운 작품들은 예거 르쿨트르가 전 세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선정된 주제를 확대함으로써,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예술, 공예, 디자인에 대한 더욱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이연 작가 소개

오늘날 국제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재능 있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중 한 명인 강이연은 동영상과 소리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몰입형 시청각 설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UCLA 에서 학업을 이어갔으며 런던 왕립예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객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이연은 영국 왕립예술학회(FRSA) 회원이기도 합니다. 예술 활동과 함께 현재 KAIST(한국과학기술원) 공과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험 디자인 연구실 디렉터로서 다양한 연구와 실습을 통해 예술과 디자인, 기술, 과학의 진정한 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강이연의 작품은 유럽, 아시아, 미국에서 전시되었으며, 그녀는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Venice Architecture Biennale), 선전 뉴미디어 아트 페스티벌(Shenzhen New Media Art Festival) 등 국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2015-16년에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런던)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후 영구 컬렉션을 위한 사이트 스페시픽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에는 막스 마라(Max Mara)가 의뢰한 딥 서페이스(Deep Surface) 전시로 전시 디자인 부문에서 레드 닷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2020년에는 대륙 횡단 현대 미술 프로젝트인 커넥트, BTS(Connect, BTS)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 강이연은 서울 PKM 갤러리에서 개인전 '앤트로포즈(Anthropause)'를 선보였고, 2022년에는 파리를 시작으로 홍콩, 모스크바, 베이징, 뉴욕, 워싱턴을 순회하는 그룹전 '입체적 상상(Cubically Imagined)'에 참여했습니다.

학술 연구자로서 디지털 프로젝션 영상 작품의 새로운 특성을 연구한 강이연의 저서가 MIT Press 와 Oxford University Press 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녀는 2022년 영국문화원에서 수여하는 문화 및 창의성 상(British Council Alumni Award for Culture and Creativity)를 수상했으며 영국 정부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위원회의 공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티스트는 정기적으로 국제회의에 초청되어 예술 및 디자인, 기술 분야의 기관과 기업에서 강연하고 있습니다.